

나주 '영산포' 近代 역사거리로

일제 강점기 가옥·정미소 등 보전 관광자원화 시, 영산동 일대 문화재 등록 지정 신청키로

‘영산포(榮山浦)’로 불리는 나주시 영산동 일대가 근대 역사거리로 조성된다.

나주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영산동 일대를 근대 역사거리로 조성, 관광자원화 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문화재청에 영산포 일

대에 대해 등록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정구간은 옛 영산포 선창에서 정미소 거리까지 750여m로 당시 형성된 시기까지 모습과 일본식 가옥, 상가 등 100여 채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당시 나주평야 일대에서 나온 쌀 등 각종 곡물을 도정했

던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정미소 3곳도 남아 있다.

영산포는 목포항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의 내륙 진출과 ‘수탈’ 전진기지로 나주평야 일대 쌀과 목포항 등의 수산물들이 모이는 호남지역 최대 집산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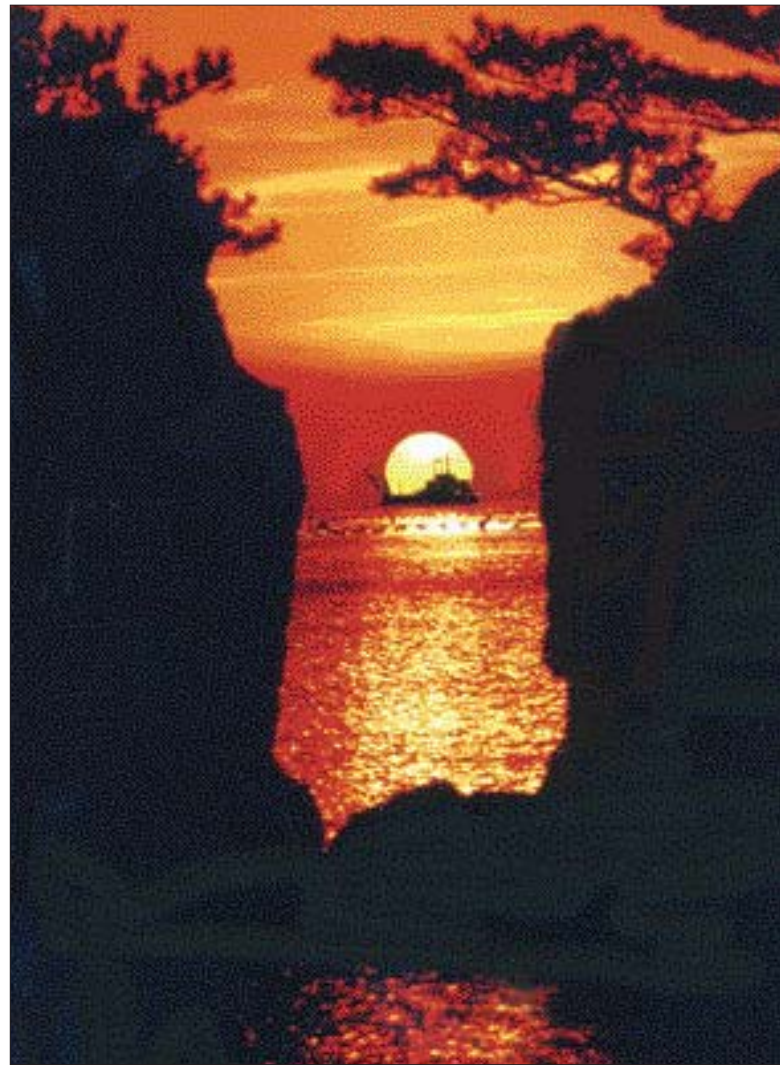
시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당시 일본인 지주(地主) 가옥 등을 매입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영산포 근대거리 조성을 위해 현충조사 등 기초조역을 마쳤으며 조만간 민간단체와 행정, 학계 등으로 협업체를 구성해 구체적 개발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일본에 의한 수탈 현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에 형성된 시설물과 문화예술작품, 생활문화자산, 역사유적 등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내장산 명칭변경 안되면 산문 폐쇄·소송 불사”

장성 백양사 성명

장성 백양사가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이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산문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백양사(주지 성오 스님)는 9일 성명을 내고 “내장산 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 보완을 해야 하며 명칭 보완이 안될 경우 ‘산문폐쇄’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양사는 “우리나라 불교 5대 총림인 고불총림 백양사가 자리 잡은 백암산은 지난 1971년부터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내장산에 편입돼 ‘내장산국립공원’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며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지는 것은 전라북도와 국립공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는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백암산의 대부분은 사찰 소유지로 지난 36년 동안 무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 재산권 행사를 제약이 많았다”며 “명칭 보완이 안되면 정부를 상대로 사찰소유자의 국립공원 해지와 강제 점유에 따른 사용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장성=고재민기자 jbg@

땅끝 관광 白眉 매표 일출

땅끝 관광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해남군 송지면 매표 일출을 이달 말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일년에 매표 사이에 해가 뜨는 시기는 오는 23일~28일, 2월 16일~20일 등이다. 매표는 땅끝 선착장 앞에 위치한 두 개의 섬으로, 전국 사진작가들이 매년 일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땅끝을 찾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우슬목 일대에서 명랑대첩제도 열린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서남해안 환경 공동조사를”

김종식 완도군수 서남해안권행정협서 제안

서남해안 바다 환경 영향에 대한 공동 조사와 서남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9일 진도군청 상형실에서 서남권 8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서남해안 바다환경영향에 대한 공동 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 군수는 “지구 온난화, 매립, 바닷모래 채취, 준설로 투기, 생활하수

등으로 갈수록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돼 수산물 증·양식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서남해안 인근 수역의 수온변화, 부영양화, 오염도 측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오염 줄이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바다환경 영향 조사 등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서남권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면서 “우

구례 고인재 육성 성과 올해 서울대 2명 합격

구례고등학교(교장 남점식)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례고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선발과 1차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교대에 각각 2명이 합격했다. 구례고는 지난해에도 서울대에 1명이 합격했다. 구례고는 군 인재육성금과 농산어촌 우수교육지원금을 기반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밝힐듯

여주시 '5천억대 거대 프로젝트' 협조 요청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금주 중 여수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주시는 오는 15일 여주시민의 날 행사에 VIP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초청했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측은 여주시가 허 회장을 초대할 15일엔 해외 방문이 예정돼 있어 시민의 날 행사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행사 전 여

수 방문을 검토 중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 방문 때 지역발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 명분으로 ‘5천억 원대 거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여수공장의 연 매출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

장흥군, 제주도에 쌀 7천만원어치 판매

장흥군이 제주도에 쌀 7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장흥군은 최근 제주도 음식업지회(지회장 김광호)가 장흥 음식업지부(지부장 이옥현)를 통해 쌀 구입을 요청해올에 따라 쌀 7천만원어치(20kg 백미 1천7백여 가마)를 판매했다.

장흥 음식업지부는 지난 2002년 제주도 음식업지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백미 2천~3천가마를 판매했다.

한편 장흥군은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제주도 음식업지회에 수재의연으로 쌀 50가마를 기탁했으며 이번엔 쌀을 공급한 장흥 용산농협(조합장 한화석·유화화, 호남석유화학 등도 적잖은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여주시 '시민의 날' 초대된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밝힐듯

여주시 '5천억대 거대 프로젝트' 협조 요청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금주 중 여수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주시는 오는 15일 여주시민의 날 행사에 VIP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초청했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측은 여주시가 허 회장을 초대할 15일엔 해외 방문이 예정돼 있어 시민의 날 행사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행사 전 여

수 방문을 검토 중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 방문 때 지역발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 명분으로 ‘5천억 원대 거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여수공장의 연 매출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

장소 바꾼 '심청축제' 잘 치렀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기차마을서 첫 개최 공연극 '뽕파전'·가장행렬 등 박수 갈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됐던 ‘제 7회 곡성 심청 축제’가 집중호우로 섬진강 기차마을로 장소를 변경했음에도 9개 부문 65개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의전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공연극 ‘뽕파전’으로 막을 열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한마당을 연출했다. <사진> 식전 행사로 열린 전통 길놀이

에는 어린이 취타대를 선두로 왕후 심청의 화려한 마차행렬과 전통 회혼례 행렬, 곡성군 11개 읍·면의 특색을 살린 가장행렬이 이어졌다.

또 심청전시관을 비롯해 부모님에게 큰절하기·안마하기, 친지에게 효행 안부를 묻는 엽서 보내기 등 ‘효행(孝行) 체험’부스는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공양미 삼백 석 모으기’ 행사에는 119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한 2천 500여만원을 모금했다.

최광주 관광홍보과장은 “내년에는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를 사계절 축제장화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겸한 체험행사를 다양화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코오롱세개일주</p> <p>관공도</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신도시 아파트 개척</p> <p>12-117-3321</p>